

WATER FOR FUTURE

일반 기사

2009 세계도시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최계운

인천대학교 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세계도시물포럼 사무총장
gyewoon@incheon.ac.kr



이진숙

세계도시물포럼 선임연구원
ccd799@empai.com

세계도시물포럼은 ‘물과 도시의 혁신과 조화’라는 주제와 ‘인천의 물색깔이 바뀌면 대한민국 도시가 바뀐다’라는 부제로 전세계 50여개국 물 관련 전문가와 NGO 관계자 등 5,000여명이 모여 4일간 (18일~21일) 세계최대급의 물포럼으로 520편의 논문과 69개의 세션을 열어 국제적인 물포럼을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 세계도시물포럼의 의미

본 세계도시물포럼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 국내에서 진행된 국제적 행사가 몇 명의 세계 학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것에 비하면, 이번 행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500여명의 전문가, NGO, 정부관료들과 수천여명의 국내전문가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세계적 물 문제를 다룬 최초의 포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계천을 본받자는 일본교 복원위원회 등 200여명의

일본 참석자의 관심도 매우 컸다. 아울러, 본 포럼을 통하여 선언된 ‘인천 물 선언’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용되고 사용되어 물관련 연구 및 인천의 브랜드밸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 및 시 차원의 물관련 관심 재고

개회식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전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에 대비,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특히 인천시가 아시아 최초로 세계물위원회(WWC)가 선정하는 물시범도시(Water Champion City)로 선정된 경위와 역할도 주목을 받았다. 안상수 시장은 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인천시가 물 산업과 연구분야의 메카도시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세계50여개 시장단이 추진한 「인천 물 선언」

「인천 물 선언」은 오늘날 무절제한 물 사용으로 야기된 세계의 물 문제가 시급한 지구적 위협이라는 인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물질적 탐욕의 절제와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물 건전한 순환체계의 복원을 다짐하는 내용의 시장과 유엔 지도자·정부관계자들과 CEO의 약속을 ‘인천 물 선언’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인천 물 선언’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물포럼, 캐나다 에드몬튼에서 열린 ICLEI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글로벌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기위하여 ICLEI와 함께 준비되었으며, UN기관 및 물 관련 네트워크

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세계석학들의 주옥같은 의견과 논문 그리고 해안

2009세계도시물포럼은 세계환경학계의 거목들이 주옥같은 기조강연(9명)이 물포럼을 주도하였고, 첫째날과 둘째날의 대한민국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일본의 이와이 쿠니오미(Kuniomi Iwai) 전 참의원은 기후변화와 물 관리정책의 변화 및 아시아 몬순지역의 물 관리, 물 안보에 대하여 기조연설 하였다.

둘째날과 셋째날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2040년 이후 수몰 위기에 처한 투발루공화국의 Apisai Ielemia(아피사이 아이레미아) 수상과 키리바시의 카투 테누아(Kautu Tenaua) 보건복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하고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야한다는 위험 메시지를 경고하였으며,

셋째 날과 넷째 날은 UN관련 기관의 안드레 디지쿠스(Andre Dzikus) UN-HABITAT 물과 위생세션 2 위원장과 휴버트 예젠(Hubert Gijzen)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UN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수위생의 관점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 없이 물과 위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도시화 추세가 늘어나고 극단적 기상 현상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도시 물 관리관행을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미래학자로서 제롬글렌(Jerome C. Glenn) 유엔미래포럼 회장과 티모시 맥(Timothy Mack) 세계미래학회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시물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물 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제고와 각국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어서 열린 학술발표에서는 지구온난화, 홍수, 가뭄, 도심의 하천유지유량, 하천 거버넌스, 수생태 복

원, 수자원관리 및 주운도시 등 10여개의 Session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물 관련 전문가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질문과 비판이 이루어졌다.

○ 국제회의와 특별세션도 주목

국제회의로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사무엘 느코모(Samuel Nkomo) 수자원개발부 장관은 한국-진바브웨 양국간 상하수도 협력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UN/ESCAP 친환경 물기반 시설 구축 워크샵, 아시아유역관리 워크샵, 사막화지역 물네트워크 워크샵, 향후 인천 송도에 UN 산하기구 추가 설치에 대한 전망 등의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세계적인 물 관련 기업의 CEO 20여명과 시장들과 국제기구 관계자 20여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4대강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해결대안을 교환하였으며, 글로벌화 시점에서 물산업의 미래발전방향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 미래주인인 청소년들의 물 컨테스트

그 밖에 국제 청소년 미래 물 컨테스트를 통하여 미래꿈나무들의 물 문제 해결방안도 제시 되었다. 11개국가에서 70여개의 팀이 지원하여 유창한 영어 실력을 과시하며 뜨거운 경쟁을 하여 청소년들의 물에 관한 관심이 상상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컨테스트는 청소년들이 현재와 미래의 물에 관련된 문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해 봄으로써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각국의 청소년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

○ 전국하천사랑 NGO도 함께 참여

2009 세계도시물축전 개최시기에 세계도시물포럼과 연계하여 열린 제 8회 강의날 대회는 NGO들 사이에

서도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인천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국 강의 날 대회의 역할과 성과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

○ 물포럼의 지속적 개최 및 보완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의 여지도 보였다. 모두의 관심과 열려속에서 도시물포럼이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2009세계도시물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최초로 시도된 물 관련 국제포럼이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곳곳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국인보다는 아침마다 웃어주고 격려해주는 외국인들의 미소를 보면서 점차 계획과 체계적인 틀을 잡아나가면서 무사히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 2년마다 본 포럼이 열리고 중간에는 세미포럼이 열려 사실상 매년 열리는 세계도시물포럼은 세계 3대 물포럼 규모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향후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잘 계획하고 진행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질 경우 무형적 자산으로서 인천의 브랜드밸류를 상승시키는데 큰 기여와 물 문제 메카도시로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세계전문가 등의 또 하나의 공간이 되길 소원한다.

함께 연계하여 개최한 제7회 인천국제환경기술전

■ 20,000여명의 관람객 방문으로 기업체 관계자와 시민들의 큰 호응 받아

- 인천광역시와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주최하고,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일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시회 기간 동안 20,000명 이상이 관람을 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전략인 저



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녹색환경산업과 기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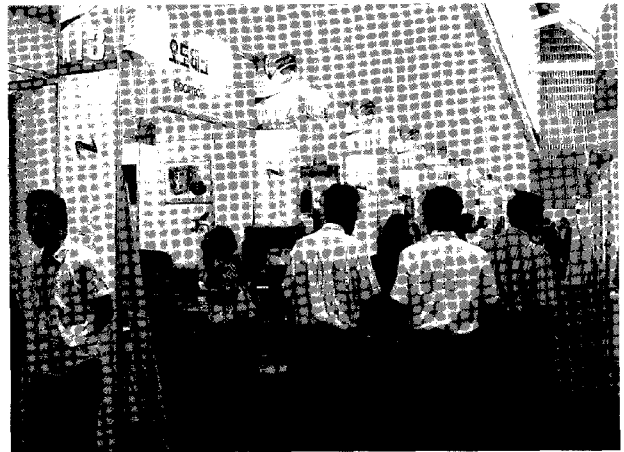
- i-ENVITECH 2009 전시규모는 총216개 기업 410부스로서 6개 주제관으로 구성되어, 정책홍보관은 그린스타트 운동 녹색통장,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하고, 녹색산업기술존은 대체에너지관, LED 조명관, 녹색기술 및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수자원관리존은 4대강특별관, 상·하수도관, 수처리관, 측정 및 계측기를 선보이며, 자원재활용관은 음식물처리기 및 건설폐기물, 자원재활용제품을, 환경벤처기업육성관은 소상공인 환경벤처 기술 및 제품소개, 중소기업 관련 법률 등 전반적으로 상담하며, 종합환경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3개의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환경교육 체험 한마당을 전개되었다.
-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친환경 개발과 더불어 최근 시범사업 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비쿼터스 생활환경과, 고효율 저에너지 소비형 친환경 건축물(LEED),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환경제품 등이 선보이며, 녹색성장주제관은 저탄소녹색성장 시민실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종합환경존은 환경정책과 대안, 시민환경단체 등의 여러 가지 활동, 국립공원 안내 등 자연환경 보전의 주제들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 해외 바이어 대표 5개국 16명 참가하여 수출 상담회 개최

-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바이어 대표 16명을 초청하여 인천국제환경기술전에 참가한 기업들과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총 43건, \$154,843,880의 상담실적 올렸으며, 중국, 대만의 바이어로부터 실 계약으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녹색 환경산업의 활로 개척과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 우리나라 녹색 환경산업기술과 제품에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 가운데 본 행사를 주최한 인천시는 관람이 참가한 기업체 관계자들로 초청한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을 주선하여 해외시장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를 힘겹게 벗어나고 있는 기업체에게 큰 도움을 주는 환경기술전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전문가와 실수요자, 일반시민,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전시회가 부대행사와 함께 4일 동안 다채롭게 펼쳐져**

- 다채로운 발표회도 마련되어, 환경타임즈가 주관한 수자원 미래포럼 “물, 건강 그리고 에너지”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공동주관으로 환경신기술 검.인증제도와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환경신기술발표회도 개최되어 수평분배식 축열연소장치를 이용한 VOC 및 악취처리기술과 선형화된 모델을 이용한 호안조의 폭기·비폭기 주기의 제어기술, Belt-Lock 장치가 부착된 스테인레스 스틸 배이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 등의 신기술이 발표되었다.
- 한편, 인천녹색성장포럼이 주관한 저탄소녹색기술발표회는 녹색기술의 세계적인 현황과 초고온 원심 분리식 연소기술, 바이오 재생 에너지에 대하여 발표되었으며,



- 경인고용안정센터와 (주)커리어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와 환경기술 일자리 알선을 위해 취업적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취업특강을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 적성검사도 실시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보였다.

■ **i-ENVITECH 대상 및 실용환경상 선정**

- 환경산업의 육성과 우수환경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시회 기간 중 9명의 심사위원의 환경기술 및 녹색기술의 심사가 진행되었다.
- i-ENVITECH 대상의 심사결과 최우수 환경기술상은 하수관거 비굴착보수공법을 선보인 (주)뉴보텍이 선정되었고, 우수 환경기술상에는 세라믹 멤브레인 필터를 선보인 (주)유천엔바이어가 선정되었다. 또한, 녹색기술상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해조류를 이용한 CO₂ 제거 시스템 및 신소재 물질 유도 및 추출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국제수준의 원천기술을 개발한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인천대학교 그린파이오니어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한 시상은 상패와 내년 해외 전시회 참가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
- 한편, 참관객의 투표로 선정한 실용환경상은 금호산업(주)이 선정되었다. 바닷물을 식수로 활용하여 물부족 현상극복과 유기성 폐기물을 친환경 원료로 재활용 하므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는 참관객의 평가를 받았다.



■ 내년 전시회는 10월 5일 ~ 8일까지 개최

- 이번 전시회가 성황리에 폐막됨에 따라 내년 전시회가 2010년 10월 5일 ~ 8일까지 송도컨벤시

아에서 개최된다.

- 녹색전시회로 개최하기 위하여 더욱 알차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